

나는 누구인가?

김동리 원작 '등신불' 24년만에 HD로, 10월 6일 KBS TV문학관서 방영



'만적 대사' 역의 성민 '여욱' 역의 정시아 '어머니' 역의 고두심

"삼계는 무엇인가?
"32처신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살은 어떤 이인가?"

오른손 검지를 꿰어 '원면살생 귀의불은(願免殺生 歸依佛恩)'을 헬서로 적어내린 후에야 원해 대사를 만날 수 있었던 '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질에 머물 수가 없었다. 일제시대 학병으로 끌려가 중국 남경 땅에서 의미 없는 학살을 하는 자신을 보며 어느 날 도망쳐 정원에서 머무르게 된 '나'. 사찰 생활에 익숙해져가던 '나'는 선택된 불자들만 볼 수 있는 '금불각' 부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비오는 밤 불래 들어간 금불각에서 고뇌와 슬픔에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향로를 머리 에 얹은 등신불(等身佛)을 만나게 된다.

장형일 감독이 다시 제작 원작에 충실 중국서 올로케 사찰 등 배우들 열의 대단 촬영진 템플스테이도 '경험'

김동리 원작 '등신불'이 1982년 임혁 한해 속 주연으로 TV문학관을 통해 제작 방영된 이후 24년만에 다시 제작됐다. HD로 제작된 '등신불'은 10월 6일 밤 10시 KBS1TV 'HD TV문학관'에서 방송을 탄다.

장형일 감독이 24년만에 다시 '등신불' 제작을 지휘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마다 '등신불'이 재방송되는 것이 부끄러웠다"며 "이번에 만든 '등신불'은 보다 원작의 배경에 충실하게 촬영하기 위해 중국에서 올로케한 만큼 이 작품이 기록에 남아 조금 덜 부끄럽다고 위안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장형일 감독은 소박한 제작 감상을 밝혔다.

'등신불'은 '나'가 정원에서 들은 '등신불' 만적 대사의 이야기를 통해 불성을 가진 나를 스스로 깨닫고 초월해 변해야 한다는 불교사상을 보여주는 드라마다.

장형일 감독은 "1982년작 '등신불'은 김동리 선생이 영화와 드라마화된 자신의 작품 가운데 가장 만족한 작품이라고 서신을 보내 오기도 한 작품"이라며 "故 이은성씨가 쓰고 김이현씨가 각색한 극본의 대사들이 잘 구성

려야 하는 몰차도 최대 진입 거리가 500m밖에 안 되어서 수입이 떨어지는 통에 나중에 그래픽으로 처리해야만 했다.

"시간은 촉박하지, 찍은 장면은 다 못 찍었지만, 하루만 더 찍는데 1000만원으로 된다면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찍고 싶었다"는 장형일 감독은 "그곳이 외져 비행기가 3일에 한번 뜬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몇 장면은 여주인공에서 찍었다"고 살짜기 고백했다.

만적 스님 역을 맡은 배우 성민은 "무슨 역할인지도 모르고 장형일 감독님 작품이라 무조건 하겠다고 매달렸다"며 "나중에 스님역이고 사찰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평생 배우할 건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탐나는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만적 대사역에 만족해했다.



'나' 역을 맡은 김정현이 열연하고 있다.



중국 이안신에서 촬영한 소신공양 모습.

만적 스님이 은 몸으로 불교의 사상을 보여줬다면 여주인공 여욱 역의 정시아는 말로 불교교리를 끊임없이 설명한다. 불자로서 더 대사가 마음 속에 알알이 새겨졌다는 정시아는 "촬영에 앞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촬영장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불교를 익혔다"며 "그때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계속 마음 속에 담아서 대사를 할 때마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신공양 장면을 위해 기쁜것은 천을 감고 6시간을 고군분투하며 사발부흥을 보여준 성민, 발이 부어서 험령하던 꽃신이 맞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연기에 몰두했던 정시아가 있었기에 '등신불'은 더 아름답고 웅장한 영상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연극 '에스터데이' 로 돌아온 함소원

초등학교 시절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고민을 안고 매일 108배를 3 번씩 하던 소녀. 미스코리아 출신 불자 배우 함소원이 연극 '에스터데이'로 9월 29일 관객들을 만난다. " '무인시대'에서 사극 연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연기 잘하네'라고 시청자들이 평가해주시는 거예요. 그 평가가 너무도 창피했어. 그렇게 연기 못하는 배우였나 고민했죠. 저 역시 연기하고, 연기에 대해서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2년여의 집거(?)를 마치고 대중 앞에 선 함소원은 2006년과 2007년을 '연기자'로 인정받는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연극 '에스터데이'를 컴백작으로 고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분간은 연극 연기에 보다 집중할 생각이다.

10년 전 첫 사랑으로 얽힌 두 남녀 '은경' '기현'의 현재형 사랑 이야기인 '에스터데이'는 로맨틱 코미디다. 함소원이 맡은 역은 노처녀 고교학자 '기현'.

"그동안 받은 시나리오들은 영화 '색즉시공'의 캐릭터와 비슷비슷해서 하지 않았다"는 함소원은 "'기현' 역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노처녀 역인데다가 고교학자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다"고 애착을 드러낸다. 느려터지고 말끝을 흐리는 경향이 있는 '함소원'과 매사 특특하고 직설적인 '기현'은 다른 점이 많아서 더 끌린다는 것이다.

성격이 다르다보니 연습 한 번 하고 나면 기운이 쏙 빠진다. 소리 지르느라 목을 혹사하기도 한다. 그래도 재밌다. 같이 연기하는 선배 동료들의 격려와 지원도 든든하다.

침거기간 동안 춤 · 보컬 트레이닝을 꾸준히 한 것은 연기에 도움이 됐다. 요가지도사 자격증도 땀. 또 다른 내일을 위해 차곡 차곡 준비



"불교를 만나 늘 감사해요"

'연기가 목마르다'는 함소원에게 '연기'는 희극이다.

직설적인 노처녀 역 매력... '연기로 인정받고 싶어' 다이어트 노하우 담은 책·새 앨범 내년 봄 낼 예정

비하는 시간이었다. 서울 구룡사 신도인 함소원은 1999년까지 매일 매일 108배를 세 번씩 했다. 요즘은 절에 자주 가지 못해 '아빠'라고 스스로를 부르며 다이어트 노하우를 담은 책 출간과 댄스음악의 새 앨범도 내년 3월쯤 낼 계획이다.

"성격의 폭이 좁을 수 있었는데 불교와 만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 것을 감사한다"는 함소원은 "대학에 단번에 붙은 것도 감사해 구룡사 소속 장미여인

이집에서 1년간 봉사하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지금도 오로지 연극 생각만으로 머리 속이 가득하지만 앞으로의 계획도 다양하다. 함소원표 다이어트 노하우를 담은 책 출간과 댄스음악의 새 앨범도 내년 3월쯤 낼 계획이다.

10월 29일까지 대학로 글로벌극장에서 이어지는 연극 '에스터데이'에서 배우 함소원을 재발견해보는 것은 어떨까. (02)764-4600 글=김지연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연극 '에스터데이' 출연진들과 연습에 몰두하는 함소원.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 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化

성표등록 : 614981호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중 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서 사부대중의 선력,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합성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리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산승복 062)228-2870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정우 천연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확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마음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정우 천연 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96번지 전화 062)226-4445 팩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